

기고



강순팔 화순군의회 전의장

“무등산 국립공원 화순지역 확대지정 결사반대”

정부 주요 기관이 정책 방향을 잘못 짚어 국민의 행복이 현저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최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타당성 조사 추진기획단은 전국 22개 국립공원별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방안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변경 안 가운데 우리 화순 지역이 속한 '무등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이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무등산 국립공원 편입면적 132ha 중 화순군이

111ha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화순군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해당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말문이 막히고 만다. 화순읍 동구리(만연산) 도유림 51ha, 순천국유림관리소 관할 수만리 국유림 53ha 등 104ha 지역은 화순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첨단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핵심 지역이다.

화순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산림육장을 건설하고 오감길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공익사업을 전개, 군을 대

표하는 공원으로 꾸준히 가꿔왔었다.

더군다나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국립공원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지 않더라도 난개발의 우려가 전혀 없는 안전지대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사유림은 단 1필지도 포함되지 않고, 국·공유림만 포함시킨 것은 누가 봐도 공원 관리의 편익성만 추구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다.

화순읍 동구리, 수만리 지역은 산과 호수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아

름답고 쾌적한 환경과 생태를 자랑하는 화순군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화순읍 동구리와 수만리를 비롯하여 이서면 안심리와 영평리 일대 무등산 국립공원 주변 화순군민들은 이번 정부 정책을 보면서 할 말을 잃고 있다.

그동안 직·간접적인 재산권 제약의 고통을 받아오고, 마을 공익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화순군민들도 불구하고 이를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또다시 횡포를 부리려는 작태에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

또한 화순군은 전국 군 가운데

가장 많은 280명의 임업인이 등록 된 지역이다. 만약 국립공원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 임업분야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고, 각종 산림사업 축소가 불을 보듯 뻔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이다.

이처럼 화순지역 산림 111ha가 공원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기미를 보이자 화순군은 즉각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끝이어서 화순군의회도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번 사안이 화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화순군민의 행복을 빼앗는 폭거임을 입증했다.

이번 무등산 국립공원 계획변경 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군과 사전 협의나 어떠한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원구역을 확대하려는 부처 이기주의의 산물 이라는데 있다.

화순군 집행부와 의회가 일사 불란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확대 지정 철회에 발 벗고 나서자 군민들도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 반대 협의회'를 구성, 체계적이

고 지속적인 이의제기를 통해 확대 지정 저지에 총력 대응키로 결의했다.

한편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은 “공동체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한다.”는 국립공원공단의 사회적 가치체계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화순군의 입장을 무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철회 촉구 성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계획을 강행하려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경고한다.

“공익성, 공정성, 합리성이 결여된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포용과 상생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서야 할 국가기관이 “화순 군민의 행복을 저해하고, 안전의식을 위협하며, 생태건강을 해치는 무차별적 계획 변경안을 결사반대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이다. 상호존중의 자세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을 발휘, 지역 주민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능해방 고3 해방감 젖은 탈선 경계하자

12월 3일은 수능시험일이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자녀의 수능 후 생활지도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필자의 자녀 또한 올해 수능 시험생이기 때문에 이번 수능시험은 더욱 각별하게 외닿는다. 격려와 응원에서부터 수능 이후 어떻게 자녀를 지도해야 할지 겪는 환란은 필자를 포함한 고3 수능생들 둔 모든 학부모들의 현실이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매년 요맘때면 수능시험 이후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고3 청소년들의 일탈소식에 불안해 지는 시기가 도래했다.

수능시험을 치렀다고 고교 3년의 학창시절이 끝난 것이 아님에도 일

부 학생들은 마치 졸업이라도 한 듯이 일탈적 행위를 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졸업때까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학교 생활이 남아 있다는 것을 수능 해방감에 젖어 망각할 우려도 있어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부터 앞선다.

더욱이 수능시험 이후에 상당수 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의 경우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일찍 하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교육당국의 생활지도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도 적지 않다고 본다. 수능시험을 치르고 난 수험생들은 심리적으로 허탈감과 해방감에 젖어 자칫 음주나 폭주, 유흥업소 출입 등 일탈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은 항상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수능시험의 긴장감 해방과 연말 분위기에 편승하여 탈선의 길로 빠져들기 쉬운때가 또한 바로 요즘이다.

수능시험 후 자기관리에 대해 청소년들 또한 수능시험 후에 아무렇게나 보내기 쉬운 자투리 시간이 야깁다는 걸 잘 알고 이를 활용할 방법도 나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지도는 말이나 거창한 구호보다 실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각 가정과 학교의 관심어린 애정과 대학생활 안내·시사 교양·성인적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한 방법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졸업

때까지 의미 없는 시간 때우기식 수업 진행보다는 사회체험이나 개인 발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탈선 예방은 물론 인성교육의 한 방편으로 삼아 청소년들의 장래 목표의식을 심어 주는 것도 좋을 듯하다.

학생들 또한 수능시험이 끝났다고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부터가 청소년들로서는 새로운 학습이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학생본연의 모습과 생활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고교시절을 마감해야 할 것이다. 입시교육도 중요하지만 수능시험 이후의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및 생활지도에 단지 학교와 경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 우리사회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